

## 외국어 교육인가 방해인가?

### - 한국 외국어 교육관행을 분석하며

박진길(중앙대)

#### 1. 서론

얼마 전 신문과 TV 보도에서 정보기술(IT)<sup>1)</sup>의 중요성을 알리며 이 분야의 전문가를 인도에서 초빙한 데서, 그것도 월 1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으로 직접 모셔온 사실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IT 전문가가 되려면 정보기술과 더불어 세계어에도 능숙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강조되었다. 요즘 대학출신 실업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의 교육열은 어느 국가 사회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만큼 해외 이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 해 1만 5000여 명이 해외로 이주하는데 그들에 관한 인터뷰나 설문조사 결과가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들의 첫 번째 이민 사유가 자녀교육 환경이라고 한다. 이는 비로 우리의 논제와 직결된다. 한국에서는 외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다<sup>2)</sup>라고 불만을 토로했

1) 외국어의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보기술(IT)뿐만이 아니다. 21세기 인류사회, 그 변혁을 주도할 여러 다른 핵심분야, 이를테면,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에도 지식 정보의 매체로서 첨단지식 정보와 기술을 수용,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2)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누구나 똑같이 타고난 <언어습득장치>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의 외국어 교육관행을 관찰하면 자명한 결과이다. 외국어 시간에 문법, 그것도 모국어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솔직한 비평은 교육이 아니라 학습 방해라니 말이다. 평생동안 벗어날 수 없는 병어리를 양산할 뿐이다. 신사고 신지식 신기술 교육을 위해 새로운 외국어 교육 인력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의 연감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49개국 중 32이다. 대학진학률은 공동 1위이고, (25-34세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 이수자 수 (34%)는 상위권이라는 데서도 우리 교육의 허구성, 즉 시간과 경비에 비해 그 비효율성이 문제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개방시대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태이다.

으니 말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절대불신에 이르렀는가를 세밀하게 관찰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정점에 서 있다. <외국어 교육> 또는 그의 개혁문제가 이미 세기적인 교육경쟁사향으로 부각된 데다 결국에는 대학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또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교육정책 문제에서 벗어나 바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어 학습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과 결과가 더욱 현실적인 외국어 교육 개혁문제의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 2. 본론

서구 사회의 외국어 학원이나 대학 연수코스는 주로 3개월, 6개월 정도이고,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이라 해도 1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수강생은 불편 없이 현지로 여행하며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원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자신이 습득한 외국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활용하며 산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10년을 배워도 말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어란 학교 다닐 때만 필요하고 졸업하면 버려지는 제1호 대상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평생 동안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외국어에 의한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비극적인 사실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타고나는 <언어습득장치>의 속성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2.1 언어학습의 핵심적 문제

아래에서 다루는 3대 사향은 언어학습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요 요건이다. 그 전형적인 사례를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1.1 언어습득/능력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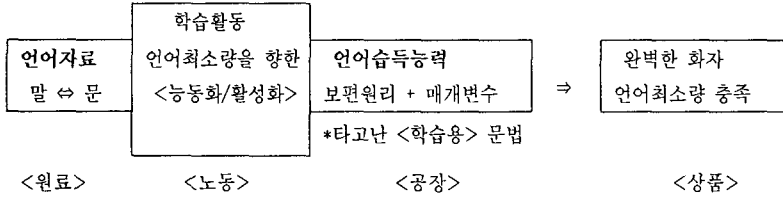
인간이면 누구나 언어습득장치(Mechanismus für den Spracherwerb;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 말하자면, <학습용> 문법장치<sup>3)</sup>를 지닌 상태로 태어난다. 이 장치가 뇌 속에서 (인간의 학습활동으로 제공되는) 언어자료를 완벽하게 체계적/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수용하게 한다. 인간이 문법적으로, 창조적으로 말한다는 것도 바로 이 장치의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인위적인 <연구용> 문법을 따로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런 <한국식 외국어 학습>에 한 번 물들면 평생토록 그 해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문법>과 <번역>위주 학습이 (모국어에 의한) 언어간섭(Interferenz) 현상을 전형적으로 조장하며, 그에 대한 긴장이 해당 외국어에 의한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를 치유하는 길은 가장 이상적인 <언어습득장치>의 능력을 확신하고 철저하게 해당 외국어 한가지로, 즉 <원어수업>으로 일관하는 일이다. 물론 실용적인 <언어자료>를 공급하기 위한 보완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아래 <도표-1>은 인간이 <언어학습>을 통해 <언어자료>와 <언어습득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완벽한 화자>를 생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언어학습>을 통해 <언어자료>를 다룰 때 <언어습득장치>는 자극에 따라 활동한다. 이 도표는 또한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는 상당한 <학습활동>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통해 <원료>와 <공장>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생성 변형 문법적인 의미에서 타고난 인간의 언어능력(Sprachfähigkeit) 장치가 다. 개별적인 자연언어가 지니는 문법<보편원리+매개변수>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갖추고 태어난다. 여기서 <학습용>과 <연구용> 문법이란 판별용일 뿐이다. 즉 전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추고 태어나는 언어학습 능력에 해당하는 천부적인 것을 나타내며, 후자는 인간이 표현한 주어진 말/문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발견한, 소위 학교문법이나 언어학 연구에서 제시되는 문법이다.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이며 완벽할까. 모국어의 습득은 바로 전자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도표-1>



인간의 <언어습득장치>는 어떤 자료, 자연어/모국어라도 그 속성을 그대로 파악 수용한다. 사투리를 공급하면 그렇게 정복하기 마련이다.

모국어를 이미 습득한 상태이거나 사춘기(Pubertät)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학습 성취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언어습득장치>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성장에 따른 신체적 조건, 이를테면 변성기에 따른 발음 문제와 동시에 환경이 다양해지고 변한 것이다. 모국어를 통한 언어간섭, 성장에 따른 두뇌작용<sup>4)</sup> 역시 한 몫을 한다. 이런 변수관계 및 환경변화를 모국어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유동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 2.1.2 언어최소량

<언어최소량>(Sprach-Minimalquantität: SMQ: Minimal Amount of Language)<sup>5)</sup>은, 인간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비타민 최소량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말하는 데에도 <언어학습>에서 공급되는 일정 량의 언어자료(말/문)<sup>6)</sup>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필요 충분

4) Götze, Lutz(1999): Was leistet das Gehirn beim Fremdsprachenlernen? Neue Erkenntnisse der Gehirnphysiologie zum Fremdspracherwerb. <두뇌는 외국어 학습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외국어 습득을 위한 두뇌(인체)학의 새로운 인식/지식> <<http://dbs.schule.de/mittor/ejournal/goetzel.htm>> 참고 바람.  
 5) 박진길(1999): “언어최소량 원칙과 외국어 교육”, 獨語教育 제17집, S. 83-113; “언어최소량 원칙, 언어교육 및 교과과정”, 獨語教育 제18집, S. 105-129; “외국어 교육의 특수화”, 獨語教育 제19집, S. 35-57); “Sprach-Minimalquantität und Spracherwerb”,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5집, S. 106-125 참고 바람.  
 6) 여기서 말/문을 함께 쓰는 것은 구어/문어 관계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언어학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언어최소량이다. 이것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면, 대체로 약 1,000개의 말/문에 해당한다.

<도표-2>7)

	- 1000말/문	정복의 광야 <Beherrschungsfeld>
	- 500 말/문	도전의 언덕 <Bekämpfungshügel>
0	- 150 말/문	(악)마의 장벽 <Teufelsmauer>

\* 하루 5말/문을 제대로 익히면 7개월이면 끝나는 것이 언어학습이다

<도표-2>는 경험적 차원에서 인간이 <언어최소량>을 채워 가는데 거치는 단계별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의 <외국어 전공> 대학졸업자의 수준은 어디일까? 그 첫 단계인 마의 장벽에는 발음과 <읽기>8)라는 관문이 있으니 말이다.

말/문에 붙은 수치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언제나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좀더 일반화하면 언어 최소량에 이르려면 일상생활에서 그 5배수인 약 5,000개의 말/문을 직접 간접으로 익힌 어느 시점에서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한 번 언어최소량을 충족시

습에서의 기본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야 언어기호 간의 연결순서와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어휘위주 학습은 무모할 뿐이다. 각각의 의미보다도 말/문 속에서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7) 이 도표는 아직 절대적인 과학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경험적인 가설에 불과하다. 여기에 붙여진 단계별 명칭은 해당 영역/단계의 특성을 암시한다.
- 8) 70년대 초 한국인 유학생들의 경우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독일 뮌헨 문화원(Goethe-Institut München)이 주관하는 국제 독일어교사 세미나 - 30개월 코스 - 에 참석한다. 발음에서부터 읽는 속도, 띄기, 강약장단, 호흡 등이 진취 실용성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억울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교육의 악순환을 수행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방송과 현지 TV 보도를 마음대로 접할 수 있는 현재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발음 문제는 학습자 스스로 보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아무튼 말이 생명인 언어세계에서 <읽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키면 누구나 자유자재로, 즉 창조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곧 만 6세 경에 모국어를 정복한다. 즉 <언어최소량>을 충족시키게 된다. 이는 인간이 <언어학습>을 통해 <언어습득장치>를 꾸준히 자극함으로써 <언어최소량>에 도달한 가장 놀라운 능력을 획득한 셈이다.

<언어최소량>이 언어학습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3) 왜 우리는 오랜 동안 외국어를 배우고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가?

그것은 언어최소량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문답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식 외국어 학습>의 두 번째 오류는 일체의 학습활동이 <언어최소량> 충족이라는 기본사항에 역행한다는 데 있다. 학습초기 단계에서부터 백해무익한 문법 동원, 형식적인 <읽기>, 즉 각적인 <번역>으로 이어지는 모국어 일색이 <언어최소량>을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사고과정(Denkprozeß, 思考過程) - 막연함, 유추 및 확인 - 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외국어 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외국어, 즉 원어수업으로 일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곧 서구에서 <원어수업>을 외국어 교육의 기본사항으로 일찍이 못박은 이유이다.

### 2.1.3 원어수업

<원어수업>이란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해당 외국어 하나로 일관하는 수업(auf jeweilige Sprache führender Unterricht)<sup>9)</sup>이다. 즉 해당 언

9) 원어수업을 시도할 때 가장 큰 버팀목은 <배짱>이다. 정확한 표현이나 확실한 문법에 대한 집착이나 긴장은 금물이다. 생각보다 실수가 많을 수도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곧 오기도 생기고, 스스로 뛰어들 바다에서 힘차게 수영을 하게 된다. 현지 사전을 찾아가며 확인작업을 하기 마련이다. 문제의 발음이나 유연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바로 숙달을 향한 동력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심탄회한 심경에 이른다. 그리고 배우며 가르치는 진지한 자세로 발전한다. (유학 중이면 끝없이 따라 다니는 엉터리 발음과 병어리 신세에 대해 분노를

어 한 가지로만 말하고, 설명하고, 판서하는 언어수업을 말한다. 이것은 교육 개방과 더불어 <한국식 외국어 수업>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를 제도화한 것도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어수업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국어 학습에서의 가장 큰 특성은 누구나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모두가 <언어최소량>을 충족시킨 결과가 아닌가? 그 기반은 무엇보다도 모국어로 일관한, 즉 원어학습/수업으로 해당 언어로의 사고를 보장한 데 있다. 이 경우 언어간섭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것은 원어수업은 빠를수록, 철저할수록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원어수업의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언어최소량>의 충족에 있다. 해당 언어로 형성된 언어자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외국어 학습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실용적인 언어환경/분위기가 필수적이다.

<언어습득>을 향한 활동은 바로 유아의 성장과 병행한다. 태어남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다. <원어주의> 학습, 그 생활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능률적이어서 결국 선생과 학생 모두를 달인(達人)으로 만든다. 모국어의 자연 생태적인 학습으로 해당언어로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sup>10)</sup>

---

삼키게 된다.) 사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현지 방송이나 TV에 접속해서 얼마든지 현지 발음에 다가설 수 있다.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척척 들어맞는 때가 온다. 바로 언어최소량이 충족된 순간이다. 아무튼 <원어수업>은 진정한 외국어 전문인으로 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임엔 틀림이 없다.

- 10) 이러한 사실에서 한국에서의 외국어 수업 관행인 요식적인 <읽기>, 번역, 문법 위주, 모국어로의 수업 진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뒤쳐질 수밖에 없다. 줄곧 언어간섭 현상을 조장해서 해당 외국어로서의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회복할 수 없는 병어리에 이르기 마련이다.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가 전혀 못 알아듣는다 해도 처음부터 해당 외국어로 시종일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시 말하면, 모국어 학습에서처럼 학습 초기에서의 막연함에서 오는 자극/갈등, 나름대로의 추정, 그리고 최종적인 확신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모국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해당 외국어로서의 사고를 촉진한다는 뜻이다.

## 2.2 모국어 습득

모국어의 습득/학습의 100% 성공은 외국어 학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모국어 학습/습득의 특성은 무엇일까?

- (4) \* 완벽성(누구나 학습에 성공해서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다).  
 \* 자연성(배울 때 아무런 긴장이나 고통이 없어 저절로 된 것 같다)  
 \* 보편성(어느 누구에게서나 언어 학습기간 및 언어능력에서 비슷하게 끝난다)  
 \* 필연성(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이루어져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을 대체로 그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국가 민족/종족이든 차이 없이, 심지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위 모국어 학습의 100% 성공을 보장한다. 이를 아래 제시된 3대 학습요소

<도표-3>

<언어습득장치>	<언어자료>		완벽한 화자
*<학습용>문법장치	*원어수업+학습활동	*<언어최소량>	*해당언어로 사고
		충족	
*<연구용>문법(x)	*번역과정(x)		*번역능력 (x)

와 연결하면,

- (5) (a) 인간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타고나는 <언어습득장치>의 탁월한 능력,  
 (b) 하나의 해당 언어로 사고하게 하는 <원어수업>의 위력,  
 (c)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학습환경 및  
 (d) <원어수업>을 통한 직선적이고도 보편적인 <언어최소량> 충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필연적인 학습기반, 언어환경/분위기 및 학습 방법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곧 다음과 같은 명제를 낳는다.



말이란 원래 인간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말을 배울 수/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어 교육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언어교육에서는 약간의 학생에 대한 학습태도 및 방법을 수정해 준다면 대부분의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또한 이를 위한 모국어 학습의 필연성, 즉 어디로 넘어져도 모국어 세계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도 학습이 계속된다는 사실에 따라 언어환경과 학습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모국어 분석에서 나타난 사항들은 일면에서는 외국어 학습/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른 일면에서는 셋째 번 교육개혁 문제인 우리의 그릇된 인식, 그로 인한 <외국어> 교육 관행과 오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할 수 없는 언어장애(Sprachstörung) 현상을 지적한 셈이다.

### 2.3 외국어 정복을 위한 대책 및 원칙

언어학습의 3대 요소를 통해, 주어진 <언어습득장치>를 확신하고, <원어 수업>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언어최소량>을 가능한 한 빨리 충족시키는 것이 그 요체(要諦)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모국어습득에서 이들이 전형적으로 어우러져 소위 언어학습의 이상인 완벽성(Vollkommenheit), 자연성(Natürlichkeit), 보편성(Allgemeinheit) 및 필연성(Notwendigkeit), 즉 100% 성공에 도달함을 보았다.

외국어 학습은 반복과 지속성을 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기 마련이다. 장기간에 걸친 학습활동이 경제성을 상실하고, 효율성과 실용성을 벗어나면 흥미를 잃고 포기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외국어 교육이 그러하다. 언어학습의 5대 숙달 사항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한 <원어 강의>조차 협의사항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교육이 아니라 방해라는 결론

11)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학생을 두 번이나 희생시킨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학습 방해에 의한 언어장애(병어리) 양산이요, 둘째로는 그나마 소수의 우수그룹(?)을 상대로 대부분의 학생을 방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데서 그러하다.

이 무색할 지경이다. 경제성에 충실한 학습이란 연구/개발과 개척에서 가능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원어수업>과 훌륭한 교수법은 역시 이 언어학습의 성공과 직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어교육의 악순환<sup>12)</sup> 고리를 끊는 과업이다. 원주민과 동떨어진 지역일수록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다.

### 2.3.1 말하기 으뜸 원칙

말하기 으뜸 원칙(Sprechen-Erst-Prinzip)이란 외국어 학습에서 <말하기>가 기본 중의 기본으로 학습의 제1 순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언어의 본질상 그 효용성/실용성을 위해 반드시 말/소리부터 도전해야 한다는 학습원칙이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말/소리와외의 전쟁<sup>13)</sup>을 의미한다.

사춘기를 지나면 발음교정이 관건이다. 발음이 실용성을 상실하면 들을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으니 말이다. 학습 중에는 항상 큰 소리로 모방하고, 익히고, 읽는 것이 상책이다.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텍스트를 선별해서 가능한 한 대화와 토론 및 발표 위주 학습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현

12) <말하기>와 <읽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자가 자신의 제자에게 또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다면 외국어 병어리란 악은 [세]대를 잇기 마련이다. 여러 유형의 악순환이 있듯이 이것 역시 모험이나 개척에는 눈을 딱 감고 우물 안에서 호연장담하는 데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세계의 문이 없어지고 심심한 현지 아나운서 방송과 TV화면이 바로 안방에서 돌아가는데,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원어강의>를 제도화하고 있는데도 대학에서, 그것도 외국어대학에서 <원어강의>라는 기본사항이 마치 혐의사항인 것처럼 차일피일하고 있다. 오늘도 외국 인력/원주민이 눈을 닦아주고 있는데 거기에 재를 뿌리는 악순환은 그대로다. 이런 판국에 A학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이려고 있다면 학부모는 당연히 보상청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13) 현대는 계기를 통해서도 발음교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Kettemann, B.(1977): Phonetische Korrektur mit dem Frequenzfiltergerät SUVAG-Lingua; in Linguistik und Didaktik 30. S. 153-164. 이 논문에는 독일영어를 비교하면서 발음교정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의 기본인 실용성을 위해 발음에 신경을 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어 시간인데도 발성이나 읽기 연습은 뒷전이다. 학생들은 묵묵히 쓰기만 한다. 그 결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이는 너무 지나친 안일일 뿐이다. 반드시 경고할 필요가 있다.

지 아나운서의 발음과 속도를 모델로 모방하고 따르는 것이 첩경이다. 이 읽기 연습<sup>14)</sup>의 중요성은 반복학습과 자학자습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보다도 발음이기 때문이다.

<말하기 으뜸 원칙>이 중요한 것은 말할 때 <읽기>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한다는 데 있다. 즉 발음, 구절 띄우기나 호흡, 속도 등이 말할 때 가장 잘 숙달될 수 있다.

### 2.3.2 동일 질량 원칙

사람들은 흔히 모국어는 저절로 된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하면 이것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수행된 학습은 드물 것이다. 어느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정복하려면 역시 모국어 습득을 위해 바친 것과 동일한 노력과 시간/경비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곧 외국어 학습에서의 <동일 질량 원칙>(Gleichquantitätssprinzip)이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성장과 변화 후에 시도되는 외국어 학습은 여러 면에서 모국어 학습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학습방법을 연구 개선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향상된 지능을 바탕으로 말하기와 쓰기를 병행하면 독서와 쓰기까지 능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2.3.3 반복 활용 원칙

반복과 활용 원칙(Wiederholung-Anwendungsprinzip)을 통한 외국어 학습은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모국어 학습이 거의 무의식 속에서 성취된다는 느낌은 바로 반복과 활용이 어디에서나 가능해서다.

14) Mazza, Elisabetta(1999): Das Lesen authentischer Texte als Grundlage für das Erlernen einer Fremdsprache: Vorstellung eines Projektes am Sprachenzentrum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Darmstadt. <외국어 학습의 토대로서 읽기/독서>: 다름슈타트 공과대학 언어센터 프로젝트 소개)

<<http://www.ualberta.ca/~german/ejournal/mazza11.htm>>참고바람.

모국어 학습이 외국어 교육에서도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 생태적인 <반복 활용 원칙>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지는 학습환경 뿐만 아니라 5대 학습/숙달 사항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자연성과 경제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과 같은 외국어 환경에서는 수업 중에 충분히 익혀지도록, 즉 교실 밖에서도 집에서도 학습내용이 기억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처음부터 학습자료를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완전히 익힌 후에 (확인용으로) 쓰도록 한다.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하며 끝까지 쓴 후에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단어 하나 하나를 보고 쓰는 것보다) 기억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기초과정에서부터 가능한 대화/토론/발표위주로 말할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오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간략한 드라마/연극 및 영화작품 등을 텍스트로 보완할 수 있다.

### 2.3.3.1 학습의 능동화 원칙

<학습의 능동화 원칙>(Aktivierungsprinzip)이란 수동적인 지식을 반복과 활용원칙에 따라 확실성/기억력을 강화함으로써 능동적/실용적인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별지도를 통해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 환경에서는 능동화 학습은 필수적이다. 흔히 흥미와 관심을 상실하고 자포자기에 빠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즉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해도, 그리고 누구나 말은 잘 배울 수 있다는 명제가 분명하다해도 학습/교육에서 이를 살리지 못한다면 모두가 허상이 되고 만다.

<학습의 능동화>란 <도표-3>에서처럼 역시 언어최소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다. <학습의 능동화>는 언어최소량의 충족 속도와 정비례한다.

### 2.3.3.2 활성화 원칙

이것은 언어자료, 즉 말/글, 또는 그것으로 형성된 다양한 텍스트를 여러 가지로 변형 개선함으로써, 휴면(休眠) 상태의 언어자료에 생동감을 불어넣

어 학습효과를 높이는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서술문을 의문문이나 감탄문, 명령문으로, 능동문을 수동이나 부정문으로, 단순한 이야기/줄거리 텍스트를 대화형으로 변형하는 작업이다. 언어기호를 통한 표현, 그 조합은 실로 다양하고 무한하다. 학습에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능동화와 활성화 원칙(Belebungsprinzip)에 따른 학습은 언어 최소량의 충족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 2.3.3.3 언어 가꾸기 원칙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문을 기본단위로 학습함은 물론이고 좋은 표현에 관심을 갖고 익혀 가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말/언어는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하며 달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 외국어를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학습태도 및 교수방법<sup>16)</sup>이면 누구든지 자유자재로 말하는 외국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구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어 텍스트도 선별해서 학습 폭을 넓힌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해당 외국어로 메모하고, 일기나 기행문도 자주 쓰는 것이 언어학습의 능동화/활성화 작업이다. 나아가 훌륭한 작가/작품에 어우러진 표현과 문체, 그리고 표준어를 익히는 것은 전문인에게

15) 약 8년 전에 독일에서 한 동양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서로 서점을 산책 중이어서 대화가 가능했다. 그녀는 유창한 독일어로 나를 놀라게 했다. 독일에서 10년 가량 다듬은 구사력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서울 괴테 인스티튜트의 독일어 선생이었다. 독일 연수 여행은 몇 개월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 원주민과 결혼해서 수 십년 생활한 몇몇 친구보다 우수했다. 이렇게 말을 애착을 갖고 가꾸기(Pflege)에 따라 누구나 달인이 될 수 있다.

16)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언어학습장치>를 유전적으로 갖추고 태어나기 때문에 실용적인 해당 언어자료만 공급한다면, 즉 <원어수업>이란 기본을 지켜준다면 거의 저절로 정복되기 마련이다. 이를 지킨 모국어 학습에서는 비전문적인 가족이나 사회 집단, 상당한 환경 차이에서도 만 6세 경이면 누구든 비슷한 수준으로 모국어를 말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가르치듯이 한국어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외국어 교육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 방해이다라는 해외 이주 걸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원어교육>의 필연성은 결코 토론이나 합의사항일 수 없다.

평생의 과업이 아닐까. 난해한 표현/구문을 쉽게 풀이하는 것도 이 원칙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 2.3.3.3.1 문장 리스트

문장 리스트(Satzliste)는 한 강좌 또는 과목의 학습 내용 전반에 대한 기록입과 동시에 개인적인 보완 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이다. 즉 강의 중에 제시된 다양한 구어/문어 텍스트에다 (말/문을 기본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이를 통해 우선 학습 분량과 진도에 따른 숙달상태를 즉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항상 휴대해서 반복 활용에 쓰인다. 인간의 <망각현상>을 보완하여 언어 최소량을 가능한 한 빨리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내용보완과 시각적 효과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내용 면에서 선생과 학생 간의 대화, 토론 내용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 활용된 텍스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수집/분석된 학습자료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강의자의 모든 것과 동시에 학습자의 보완적 노력과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험 때는 2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제출하고, 다른 한 부는 휴대한다. 문장리스트를 활용한다면 개별적인 도전의지에 따라 여러 번 언어최소량 충족지수(?/1000 ...)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 2.4 언어 분위기 조성

모국어의 습득조건과 환경은 외국어 학습을 위에서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어 전용 특구(特區)를 생각할 수 있다. 학과 사무실, 휴게실, 교수 연구실 등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어울리고 대화하며 교정도 가능하면 그만이다. 효과적인 보완시설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요즘 영어권에서조차 영어능력을 모국어 차원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획기적인 학습효과와 제도적 장치를 위해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해야 한다<sup>17)</sup>는 주장이 강하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 경쟁을 감안하면 결코 무리한 발상이 아니다.

외국어의 세계화와 그 역할을 인식한다면 품위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 2.4.1 관찰과 개선

언어교육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우는 교육은 우선 모국어 분석에서 나타난 두 가지 명제(6)에 역행하는 셈이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에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인간 언어능력의 동일성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대학은 전공이나 능력별로 선발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찰과 개선(Betrachtung und Verbesserung)은 교육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과제요 의무이다. 특히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 및 학습활동 차원에서 그러하다.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유사 자폐증<sup>18)</sup>에 시달리고 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자폐증의 속성을 그대로 갖는 증상이다. 학교에 있으나 학습활동과는 상관없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니 말이다. 모든 학습에서 여지없이 버려진 집단이다. 이를 치유<sup>19)</sup>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커녕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치/조장하는 셈이다.

17) 최상정(前한국번역가협회 감사)의 동문칼럼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해야 한다> 서울대 同窓會報 <제281호> (2001. 08. 15). 영어가 강한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의 Immersion Class 운영과 bilingual 교육 등을 언급함.

18) 이 현상은 습관으로 된 일종의 자위 또는 적응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학원, 가정으로 에워싼 좁은 공간, 행정편의 주의, 요식적이고 획일적인 학습 및 평가들에 대한 박탈감에서 보상심리가 학습포기 또는 저항 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에서 10%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예사다. 1분이면 충분한 것도 1시간 이상을 끌어도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이런 증세이다.

19) “유사 자폐증”은 아직 의학적으로는 연구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만연된 병적 현상임엔 틀림이 없다. 계절학기 수강생들을 수 차례에 걸친 실험결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 (치유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 경각심을 준 결과 학습 태도 및 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 2.4.2 도전과 정복정신

최근 누군가가 학교를 “장터”라고 했다. 경제원리가 가장 잘 통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동아리 행사 때가 아니라도 교정의 곳곳에서 삼겹살 구이 예다 맥주나 탁주박스가 눈을 자극한다. 대학은 자유를 만끽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치열한 입시를 통과한 지성의 세계라고 볼 수 없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입학할 때 졸업장이 보여서일까.

전통적으로 3개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대학졸업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 최선을 다해야 졸업이 가능하다<sup>20)</sup>. 입학은 비교적 쉬우나 졸업은 어렵다. 그래서 도전하고 정복하는 길을 택한다. 한국 학생에게는 고통도 고민도 도전할 대상도 장소도 없다. 한국어로 통하는 외국어 시간이라면 현지로의 유학이나 여행에서 당면할 수 있는 수모나 낭패감의 어느 정도를 예감할 수 있을까? 21세기는 전문인 시대이다. 대학출신 실업자가 늘어만 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문인은 도전과 정복정신(Herausforderung und Bekämpfungsggeist)으로 태어나고 또한 살아간다. 신사고 신지식 역시 그런 토양에서만 자라날 수 있다.

### 2.4.3 평가기준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는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다. 선생의 평가나 학교에서의 학습평가가 허위 또는 별 것 아니라는 뜻이 아닌가? 학습평

20)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독일의 교육전통은 21세기 지식 정보 기술 사회에서도 독일의 자존심이다. 그들은 21세기를 내다보며 Dialog der Kulturen (문화적 대화)를 슬로건으로 Hannover에서 Expo 2000 행사를 가졌다. 그들은 이를 위해 교육과 외국어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어가 영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인데도 말이다.

\* <Der Dialog der Kulturen> von Michael Naumann (Staatsminister) In: Deutschland. Zeitschrift für Politik, Kultur, Wirtschaft und Wissenschaft D7999F Nr.3/2000 Juni/juli D1.

\* <Bildungsreform für Deutschland> (독일 교육 개혁) Roman Herzog (전 독일대통령 1997. 11. 05 연설). 여기서 21세기를 내다보며 독일의 이론과 실습이라는 이원론적 학습/교육 전통을 평가함.



가에 따라 학습방향은 물론이고 새로운 의욕과 도전정신이 살아나거나 죽기 마련이다.

학습과 평가는 우선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치열한 대학입시, 그것도 계열별 성적에 따라 층계를 세우는 사회라면 대학교육평가에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차별화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외국어 병어리가 되는 데서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어떤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가는 뒷전이다.<sup>21)</sup>

성적평가에는 변별력이 생명이다. 요식적인 수우미양가/ABCDEF, 백분율까지 같은 평가, 그러나 실력차이는 천차만별이라는 데서 그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기업체에서 인력 채용시에 믿지 않는 성적표. 거기에 대처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평가라면. 전문인을 요구하는 교육 경쟁시대에 우리의 설 곳은 어디일까.

평가는 학습의욕을 좌우한다.<sup>22)</sup> 전공과 실력이 무시된 채 대학 간판 서열이 주로 작용하는 풍토에서는 학습의욕이나 도전정신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런 기정사실과 졸업보장(?)이 “놀고 먹는 대학”을 만들고 있다.

### 3. 결론

지금까지 주로 외국어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언어학습의 3대 요소, 모국어습득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동시에 5대 숙달사항의 순서와 비중을 지키는, 소위 표현/말 위주 교육, 이를 위한 기본 사항인 원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왜 우리는 오랜 동안 외국어를 배워도

21)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수재가 모인다는 <서울대학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영어에다 전공언어를 유창하게 표현하는 데서 순위는 뒤바뀌고 만다. 특히 외국유학에서 그러하다. 서구 교수들의 평가에서는 전공 외국어 표현과 서술 능력이 일차적이지 않다.

22) 어느 분야/사회에서 평가제도/관행을 보면 그 결과가 보이기 마련이다. 평가내용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가점수가 곧 신뢰와 확인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는 실로 끝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영어, 그것도 대학에서 전공하고도 문서처리는 고사하고 간단한 전화조차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학점은 거의 A가 전부이다. 한낱 위조서류가 아닐까? 전문인 시대, 책임지는 평가가 절실하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라는 해묵은 의문이다 그 핵심적 요소인 <언어최소량> 충족 문제23)를 다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국어 습득 과정이 외국어 학습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책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간이면 누구나 <언어습득장치>를 갖추고 태어난다.
  - 이 장치는 모든 언어자료를 언제나 문법적/체계적으로 분석 수용한다. 따라서 말을 배울 때는 문법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
  - 그 대신 실용성이 높은 언어자료를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다.
  - 외국어도 누구나 모국어처럼 잘 할 수 있다는 기반을 제공한다.
- (2) 왜 우리는 오랜 동안 외국어를 배우고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가?
  - 그것은 <언어최소량>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언어최소량> 충족을 향해 직행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모국어를 자유자제로 말 할 수 있는 것도 이 <언어최소량>을 채워준 결과이다.
- (3) <원어수업>이란 해당 언어 한가지로 시종일관하는 수업이다.
  - <원어수업>은 해당 언어로의 사고를 보장한다.
  - 언어교육의 5대 숙달 사항의 위상에 부응하는 수업형태이다.
  - <언어최소량>을 충족시키는 첩경이다.
- (4) 모국어 습득의 100% 성공이란
  - 언어학습의 3대 요소가 가장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이다
  - 인간이면 누구나 타고나는 <언어습득장치>의 기반 위에 모국어로 일관한 <원어수업>을 통해 누구나 <언어최소량>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 외국어 학습/교육의 거울이요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

23) 그러나 근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상황이다. 이를테면, <원어수업>은 상식적인 기본사항이지 결코 논의나 합의 도출이 허용되는 문제일 수 없다. 이는 수영 아카데미 훈련에서 산에 올라 등산 장비 소개와 걷기 훈련을 하는 것과 비유되기 때문이다. 완전착각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이 논문 중의 주석 2) 참고 바람.

<언어습득장치>	<언어자료>		완벽한 화자
*<학습용>문법장치	*원어수업+학습활동	*<언어최소량> 충족	*해당언어로 사고
*<연구용>문법(x)	*번역과정(x)		*번역능력 (x)

즉 모국어 학습의 완벽성, 자연성, 보편성 및 필연성에서 그러하다.

- 모국어 습득 결과는 다음과 같은 2대 명제를 낳는다.

말이란 원래 인간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말을 배울 수/할 수 있다

교육계가 재인식할 사항이다.

- (5) 외국어 학습에는 학습내용 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교수법이 필수적이다.
  - 경제성에 충실한 학습/교육이어야 한다.
  - 실용적인 학습원칙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이다.  
<말하기 으뜸 원칙>, <동일 질량 원칙>, <반복 활용 원칙>, <능동화/활성화 원칙>, <가꾸기 원칙>
- (6) 현지 아나운서를 모델로 빠른 속도로 읽기와 말하기를 훈련한다.
  - 읽기는 <마의 장벽>에서의 핵심과제이다.
  - 발음과 읽기는 학습자 개개인이 충분히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시대이다.
- (7) 실용적인 언어 환경/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관찰과 개선, 특히 개별지도가 있어야 언어학습의 보편성을 구현할 수 있다.
  - <언어최소량> 충족을 향한 외국어 교육에는 도전과 정복 정신이 있어야 한다.
  - 원하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학습평가, 기준과 방법이 필요하다.
  - 품위/교양교육, 환경보호 정신 함양도 세계화적 외국어 교육에 필수적이다.

세계 모든 국가 사회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생존문제를 다양한 교육<sup>24)</sup>과 연구에서 찾고 있다. 신지식, 신사고, 신기술을 창출하는 교육을 위

24) 세계화와 교육경쟁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성장과 두뇌활동 관계, 한국어의

해 비효과적인 외국어 교육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실용성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 전문인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와 훈련을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Fanselow, G./Felix, S.W.(1990): Sprachtheorie Eine Einführung in die Generative Grammatik Bd. 2: Die Rektions- und Bindungstheorie. Francke Verlag Tübingen.
- Götze, L.(1999): Was leistet das Gehirn beim Fremdsprachen- lernen? Neue Erkenntnisse der Gehirnphysiologie zum Fremdsprachenerwerb. <<http://dbs.schule.de/mittor/ejournal/goetze1.htm>>
- Homberger, D.(1989): Sachwörterbuch zur deutschen Sprache und Grammatik; 1. Aufl., Verlag Moritz Diesterweg. Frankfurt am Main.
- Keller, J./Leuninger, H.(1993): Grammatische Strukturen - Kognitive Prozesse Ein Arbeitsbuch; narr Studienbücher Tübingen.
- Kettemann, B.(1977): Phonetische Korrektur mit dem Frequenzfiltergerät SUVAG-Lingua; In: Linguistik und Didaktik 30. S. 153-164.
- Keller, R.(1977): Zwölf Thesen zur Lehrerfortbildung. In: Linguistik und Didaktik 30.
- Mazza, E.(1999): Das Lesen authentischer Texte als Grundlage für das Erlernen einer Fremdsprache: Vorstellung eines Projektes am Sprachenzentrum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Darmstadt. <<http://www.ualberta.ca/~german/ejournal/mazza11.htm>>
- Müller, R. M.(1977): Kommunikative Kompetenz und Arbitraität - Pragmalinguistische Irrwege der Fremdsprachendidaktik. In: Linguistik und Didaktik 29.
- Naumann, M.(2001): Der Dialog der Kulturen. In: Deutschland Zeitschrift für Politik, Kultur, Wirtschaft und Wissenschaft D7999F Nr.3/2000 Juni/Juli D1
- Reiß, K./Vermeer, H.J.(1991):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

언어 유형 연구, 원어교육의 제도화 등의 보완 연구와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Schwanz, M.(1992): Einführung in die Kognitive Linguistik. Tübingen.  
Steinberg, D. D.(1982): Psycholinguistics. Language, Mind and World.  
Longman London and New York.  
獨語教育 제15집(1997)-17집(1999).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서울.  
박진길(1999a): <언어 최소량> 원칙과 외국어 교육 - 생성문법 이론을 중심으로 -. 獨語教育 제17집, S. 83-113.  
박진길(1999b): <언어 최소량> 원칙, 언어교육 및 교과과정. 獨語教育 제18집, S. 105-129.  
박진길(1999c): Sprach-Minimalquantität und Spracherwerb - Auf der Grundlage der Generative Grammatik -. 한국독일어교육학회 제5집, S. 106-125.  
박진길(1999d): 외국어 교육의 특수화 - 언어최소량, 뇌기능 및 원어 교육을 중심으로 -. 獨語教育 제19집, S. 35-57.

## Zusammenfassung

Jin-Gil, Park (Chung-Ang Univ.)

Bis jetzt haben wir hauptsächlich verschiedene Probleme an Ort und Stelle des Fremdsprachunterrichts analysiert, und zwar:

- (a) den >Spracherwerbsmechanismus<, die >SMQ< und den >auf jeweilige (Fremd)sprache führenden Unterricht<, die drei Lehr- u. Lernfaktoren des Spracherwerbs,
- (b) den Lehr- u. Lernprozeß der Muttersprache,
- (c) die 5 Fertigkeitenaufgaben und
- (d) einige Prinzipien und ihre Maßnahmen der Sprachlehr- u. -lernmethode

Aus diesen Grundlagen werden die folgenden Ergebnisse besonders hervorgebracht werden:

- (d) Das Hauptziel des Fremdsprachunterrichts soll/muss man darin finden, zunächst die >SMQ< zu erfüllen, die etwa 1000 Äußerungen/ Sätzen entspricht, um perfekt zu sprechen.

(e) Alle Menschen kommen ausnahmslos genetisch mit dem >Spracherwerbsmechanismus< zur Welt, der alles Sprachmaterial grammatisch/systematisch aufnimmt.

(f) Aus diesem Grund darf man den Anfänger keine Grammatik lehren, bis er perfekt sprechen kann, weil er als Mensch schon alles grammatisch lernen kann.

(g) Stattdessen lohnt es sich, im Unterricht nur auf jeweilige Fremdsprache zu sprechen, zu schreiben und zu erklären, d.h. den auf jeweilige Sprache führenden Unterricht intensiv zu halten, was auch beim Mutterspracherwerb immer der Fall ist.

(h) Es ist sehr ratsam für uns, die Lehr- u. Lernmethode im Fall des Mutterspracherwerbs als Unterrichtsmodell dynamisch anzuwenden, weil sie uns immer den 100% Erfolg geschenkt hat.

(i) Im Alltag braucht man ständig den Ansprecher/die -in (z.B. im Fernseh- durch Internet) nachzuahmen, und zwar die Sprechweise, die Gestik bzw. Mimik usw.

(j) Es soll/muss streng verboten werden, im Fremdsprach- unterricht auf Muttersprache zu sprechen, weil es mit der Fremdsprachausbildung, d.h. mit der Erfüllung von >SMQ< gar nicht zu tun hat, sondern eine Art Betrug sein könnte, soweit das folgende koreanische Sprichwort noch gilt: Der Apfel fällt nicht weit vom Stamm.

(k) Ohne Reformierung des konventionellen Fremdsprachunterrichts, 100% Mißlingen hinnehmen zu müssen, kann man nichts weiter machen. Denn er stört uns das auf jeweilige Sprache bezogene Denken. Z.B. die sinnlose Grammatik, auf Muttersprache zu sprechen, die unmittelbare Übersetzung usw. sind dessen Rädelsführer.

Alle Länder beschäftigen sich ständig damit, ihre Möglichkeit in der harten Existenzkonkurrenz durch die Bildungsreform auszugleichen. Denn die Ausbildung der Hochtechnologie im 21. Jh. braucht notwendig die Fremdsprachfähigkeit als ihre Grundlage. Ohne Selbstreformierung könnten wir als Fremdsprachlehrer/-professoren - auf Koreanisch sprechend - weiter den Fremdsprachunterricht halten?